

## 아가

아가의 히브리어 원제목은 '노래들 중의 노래'라는 뜻의 **שיר השירים**(쉬르 하쉬림)이다. 헬라어나 라틴어 번역본 제목은 그 뜻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영어로도 Song of Songs 로 번역되었다. 단 King James Version 에는 아 1:1 에 연유해서 Song of Solomon 이라는 제목이 붙여졌다. 한글성경에 붙여진 아가(雅歌)라는 제목은 아름답고 우아한 노래라는 뜻이며 한문성경에서 유래되었다.

아가의 저자는 솔로몬이라는 데에 큰 이견이 없다. 우선 아 1:1 에 솔로몬의 아가라 기록되어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본서에 사용된 언어, 용어, 표현, 문체, 문학성, 지식 등을 볼 때 솔로몬의 배경, 경험 및 솔로몬 시대의 문물과 일치한다. 왕상 4:32 에 솔로몬이 잠언 삼천 가지를 말했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단 한편의 노래도 보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것이다.

아가의 주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아 6:13) 여인의 사랑이다. 이 사랑 이야기가 단순히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은유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일반적으로 유대교적 해석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 기독교적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야기로 본다. 이러한 경우 신랑(하나님, 예수님)과 신부(이스라엘, 교회)의 각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아가를 하나의 극본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등장인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리고 목동으로 표현된 솔로몬을 꼽는다. 목동과 솔로몬을 다른 사람으로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지만 그녀가 옛 애인 목동을 잊지 못해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이야기의 전말에 설득력이 없다. 아가에서 일인칭이 술람미 여인 또는 솔로몬에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너'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 이 노트에서는 이해를 돋기 위하여 본문에 '나'로 표현된 주어를 풀어서 기록하였으며, 목동과 솔로몬은 동일인으로 보았다.

## 1 장

1. 네 사랑이 무엇보다 낫다고 하였나? 포도주 (아 1:1)
2.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비록 검으나 아름다워 무엇과 같다고 하였나?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아 1:5) ⇒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사 21:17) 이스마엘의 후손(창 25:13)이며 이들은 검은 염소의 털로 짠 천막을 치고 살았다. 또한 게달은 히브리어로 검다는 뜻이 있다. 자신은 게달의 장막과 같이 검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다고 묘사했다.
3. (술람미 여인은) 어째서 거무스름해졌나? 햇볕에 쪄어서 (아 1:6) ⇒ 내 어머니의 아들이라 함은 일부다처가 일반적인 당시에 이복형제가 아님을 뜻하는 표현이다. 후반부에 나오는 '나의 포도원'은 자신의 용모를 뜻하며 포도원을 가꾸느라 피부가 검게 탔음을 뜻하고 있다.
4.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자(솔로몬)가 무엇을 하는 곳들을 알기 원했나? 양 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 (아 1:7) ⇒ 솔로몬은 양치는 목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재미있다. 하나는 술람미 여인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솔로몬을 목동으로 표현했다는 것과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목동으로 가장했다는 것이다. 얼굴을 가린 자라 함은 목동 즉 솔로몬 왕에게 자신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5. (술람미 여인에게)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였나? 양 때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아 1:9) ⇒ 제 3 의 인물이 등장하여 술람미 여인에게 조언하고 있다.
6.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무엇에 비교했나? 바로의 병거의 준마 (아 1:9) ⇒ 솔로몬은 애굽으로부터 말과 병거를 수입하였다 (왕상 10:28-29). 당시 전차를 끄는 말들은 마병이 타는 말보다 더 화려하게 장식품으로 치장하였기에 말보다는 그 장식품과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
7. 왕이 침상에 앓았을 때에 무엇이 향기를 뿐었나? 나도 기름 (아 1:12) ⇒ 나도(nard) 기름은 인도로부터 수입한 값비싼 향유이다. 신약에서는 나드로 번역되었다 (막 14:3, 요 12:3).
8. (술람미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솔로몬)가 무엇과 같다고 하였나?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 (아 1:14) ⇒ 엔게디는 사해 서쪽에 있는 성읍이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이 곳에 머물렀으며(삼상 23:29-24:1), 여호사밧 때에 모압, 암몬,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를 치기 위하여 집결한 곳(대하 20:1-2)이기도 하다.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이며 오아시스의 풍부한 샘물로 포도원과 대추야자 나무가 많이 있었다. 고벨화는 원어 '코페르'의 한글 식 발음에 꽃을 뜻하는 '화'를 붙여서 만든 단어이다. 이 식물은 엔게디 일대에 자생하며 꽃은 향기가 강하여 향료로 쓰이고 물감으로도 사용되었다. KJV: camphire, NIV: henna 로 되어 있는데 camphire 는 henna 의 고어체이다.

## 2 장

1.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였나?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 (아 2:1) ⇒ 본문의 주어가 솔로몬이냐 아니면 술람미 여인이냐 하는 이견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1 절과 2 절이 주고받는 형식으로 간주하여, 후자라고 본다. 수선화는 NIV KJV 공히 장미로 되어 있다. 원어는 샤프론이나 크로커스를 뜻하는데 정확히 어떤 꽃을 지칭하였는지 확실치가 않다. 사론(샤론)은 문자적으로 평원이라는 뜻이며 고유명사로는 갈멜산과 읍바 사이의 평원을 지칭한다 – 본문에서는 단순히 평원이라고 쓰인 것으로 해석한다. 본문의 비유는 화려함 보다는 평범함과 순결함에 초점을 둔 것이다. 샤론의 꽃은 예수님을 상징(찬송 89 장 참조)하기에, 아가에 기록된 사랑이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라고 보는 근거 중 하나로 본문이 꼽힌다.
2. (솔로몬은) 자기의 사랑을 무엇으로 비유하였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아 2:2) ⇒ 다른 여자들은 가시나무에 비유했고 술람미 여인은 그 중에 피어 있는 백합화로 비유했다.
3.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무엇으로 비유했나?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아 2:3) ⇒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 너무 건조하고 더워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 본문에 사과라고 기록된 과일은 모과의 일종으로 본다. 이 비유는 열매를 맺는 모과나무와 그렇지 못한 수풀과의 대조이다.

4. 무엇으로 힘을 돋고 무엇으로 시원하게 하나? 건포도로 힘을 돋고 사과로 시원하게 한다 (아 2:5)  
 ⇒ 건포도라 한 것은 건포도를 뭉쳐서 만든 케이크의 일종이라고 본다. 후반부에 언급된 사랑하므로 병이 생겼다는 것은 상사병을 뜻한다.
5. (술람미 여인은) 무엇을 두고 사랑을 깨우지 말라고 부탁하였나? 노루와 들 사슴 (아 2:7) ⇒  
 노루와 사슴은 겁 많고 소심한 동물이며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심경을 그렇게 비유하였다.  
 여기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추상적 사랑을 뜻한다. 같은 표현이 3:5 과  
 8:4에 반복되어 일종의 후렴구로 보인다.
6. 포도원을 허는 동물은? 작은 여우 (아 2:15) ⇒ 이 부분의 주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술람미 여인으로 본다. 주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도 약간 다른데, 두  
 사람이 바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석한다.
7. 사랑하는 자를 어느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에 비유했나? 베데르 산 (아 2:17) ⇒ 이런 이름의  
 산은 알려져 있지 않다. '베데르'로 번역된 원어에 나눈다는 뜻이 있어 계곡으로 나뉘어진 험한  
 산을 뜻하였다고 본다 – NIV: rugged hills, KJV: mountains of Bether. '날이 저물고'라는 부분은  
 영어성경에는 새벽이라는 번역이 지배적이다 – NIV KJV: until the day breaks. Shadow에  
 어두움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림자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가 없다.

### 3 장

1. 솔로몬의 가마를 이스라엘 용사 몇 명이 둘러쌌나? 60 명 (아 3:7) ⇒ 가마는 개역성경에  
 연(輦)이라 되어 있었다. 연은, 한문에서 눈치 채겠지만, 2 사람이 끄는 바퀴가 달린 수레를  
 뜻하며 임금이나 귀족이 탔다. 원문 נִסְעָן(미타)에는 침상(寢牀)이라는 뜻이 있어 비스듬히 누어서  
 타고 가는 수레 또는 가마라고 해석한다. 반면에 9 절에서 가마라 번역된 원어 אַפְרִיל(아피론)은  
 어원과 뜻이 분명치 않지만 전후 문맥 상 가마로 번역되었다. 7 절에 언급된 가마보다 더  
 호화로운 다른 가마로 이해한다.
2. 솔로몬 왕의 가마는 무엇으로 만들었나? 레바논 나무 (아 3:9) ⇒ 레바논 나무는 시더(cedar)  
 재목을 뜻하며 향이 좋고 잘 썩지 않는 특성이 있다.
3. 가마 안에는 무엇이 엮어져 있나?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 (아 3:10) ⇒ 본문의 정확한 뜻이  
 애매해 다음의 3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가마 안이 1. 예루살렘의 딸들에 의해 사랑스럽게  
 치장되었다, 2. 예루살렘의 사랑스러운 딸들에 의해 치장되었다, 3. 사랑의 표시로 예루살렘의  
 딸들이 치장하였다.

### 4 장

1.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이를 무엇에 비유하였나? 목욕장에서 나오는 텔 깎인 암양 (아 4:2) ⇒  
 텔을 깎은 양은 우선 목욕을 시키는데, 그 목욕장에서 나올 때 짧은 텔이 달라붙어 양이  
 반드시 빠르게 보인다. 술람미 여인의 이가 그렇게 촉촉하고 윤기 있다는 표현이다.

## 5 장

1. 술람미 여인은 꿈 꾸는 중 성 안에서 어떤 일을 당했나? 순찰하는 자들이 쳐서 상하고 파수하는 자들이 겉옷을 벗겨 가졌다 (아 5:7)  $\Rightarrow$  2 절에서 시작된 악몽의 절정이다. 2 절: 꿈 속에서 솔로몬 왕이 문을 두드렸는데, 3 절: 이미 잠자리에 들어 머뭇거리자, 4 절: 그가 문 틈으로 손을 넣기에, 5 절: 일어나 문을 열었으나, 6 절: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그래서 그를 찾아 나섰다.

## 6 장

1.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머리털을 무엇에 비유했나?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아 6:5)  $\Rightarrow$  4:1 의 반복이다. 이 지방 염소의 털은 짙은 검은색 또는 갈색으로 윤기가 흐른다.
2. 솔로몬의 왕비와 후궁은 각각 몇 명이었나? 왕비 60 명, 후궁 80 명 (아 6:8)  $\Rightarrow$  왕상 11:3 에 기록된 후궁 700 명, 첨 300 명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이다. 그 차이는 아가는 솔로몬 왕 초기에, 왕상은 후기에 기록되어 생긴 것이라고 해석한다.

## 7 장

1.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목을 무엇에 비유했나? 상아 망대 (아 7:4)

## 8 장

1.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자기를 무엇과 같이 마음에 품었다고 하였나? 도장 (아 8:6)  $\Rightarrow$  보통 도장은 가슴에 품지도 않고 팔에 두지도 않는다. 그런데 본문에 도장이라고 번역된 원어에는 반지 또는 직인(職印)이라는 뜻도 있다. 그러한 도장 또는 반지는 끈에 끘어 목에 걸었거나 손가락에 끼고 다녔다 – 창 38:18, 렘 22:24 참조. 본문에서는 왕의 직인이 포함된 반지를 뜻한다고 해석하며 그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비유라고 이해한다.